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13일(수) 총 7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 문화유산정책담당 오동철 ☎440-4471 • 담당자 이윤희 ☎440-448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죽산 조봉암 사진展

### 그리움... 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

- 사진으로 만나는 죽산 조봉암, 인천의 인물 재조명 기회 -

- 대중에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 있어 주목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1층)에서 10월 12일 (화)부터 16일(토)까지 죽산 조봉암 사진展 ‘그리움... 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죽산 조봉암은 인천을 대표하는 항일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며 우리 민족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이번 사진전은 죽산 조봉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의 사상을 인천시민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먼저 한국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한 마가렛 버크화이트(Mararet Bourk-White)\*가 1952년 대통령선거 취재 중에 8월초 부산에서 죽산 조봉암의 유세 현장을 담은 사진 2점이다.

\* 마가렛 버크화이트(Mararet Bourk-White; 1906~1971) : 미국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이자, 『

Life』지 창간호 표지에 버크 댐 사진을 실어 현대 포토 저널리즘을 출범한 전설적인 여성 보도 사진기자

사진전을 주최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은 실제로 ‘Life’ 지에 실리지 않은 B컷으로, ‘죽산 조봉암 記錄’ 저자 중 한명인 박경태 박사가 발굴한 자료라고 전했다.

사진은 연단에 올라 구름 관중을 앞에 두고 연설하는 죽산 조봉암의 모습, 뒤편에 확성기를 든 남성과 한복을 입고 탕건을 쓴 어르신을 비롯한 청중의 모습이 담겨 있어, 당시 대통령 선거의 현장감과 시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1958년 진보당 사건 당시 서울특별시경찰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죽산 조봉암의 자필 자공서(自供書) 4점도 최초 공개된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위 자공서는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현수 교수의 자료 제공으로 사진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현수 교수는 죽산 조봉암의 자필 자공서 공개의 의미에 대해 “이 기록들은 진보당 사건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사실에 기초해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며, 죽산 조봉암의 사상, 그가 진보당을 창당하고자 한 이유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자로서의 죽산 조봉암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사진전 개최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죽산 조봉암 語錄’, 2020년 ‘죽산 조봉암 記錄’ 발간 등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시는 죽산 조봉암의 생애를 따라 구성됐다. 평범한 강화 소년에서 국내외에서 중형무진 활동한 독립운동가로의 성장, 해방 후 인천으로 돌아와 혁명가에서 정치가로의 전환,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의 활약상 그리고 평화통일과 복지국가의 꿈, 진보당 사건과 복권 되기까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전시가 “인천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선구자인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선생의 참모습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 이 라면서 이 전시가 우리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역사인식의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시청 전시실에 이어서 10월 18일(월)부터 10월 25일(월) 오전까지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이음마당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 붙임 > 사진전 포스터 및 라이프지 사진

#### < 관람 안내 >

- 기 간 : (1차) 2021. 10. 12.(화) ~ 10. 16.(토) 15:00  
(2차) 2021. 10. 18.(월) ~ 10. 25.(월) 12:00 ※10월 24일(일) 휴관
- 장 소 : (1차)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1층)  
(2차)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이음마당(A동 1층)
- 문 의 : (사)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02-743-0731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032-440-4484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032-455-7166

[붙임1] 죽산 조봉암 사진전 포스터

죽산 조봉암 사진展 |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 (1층)

1899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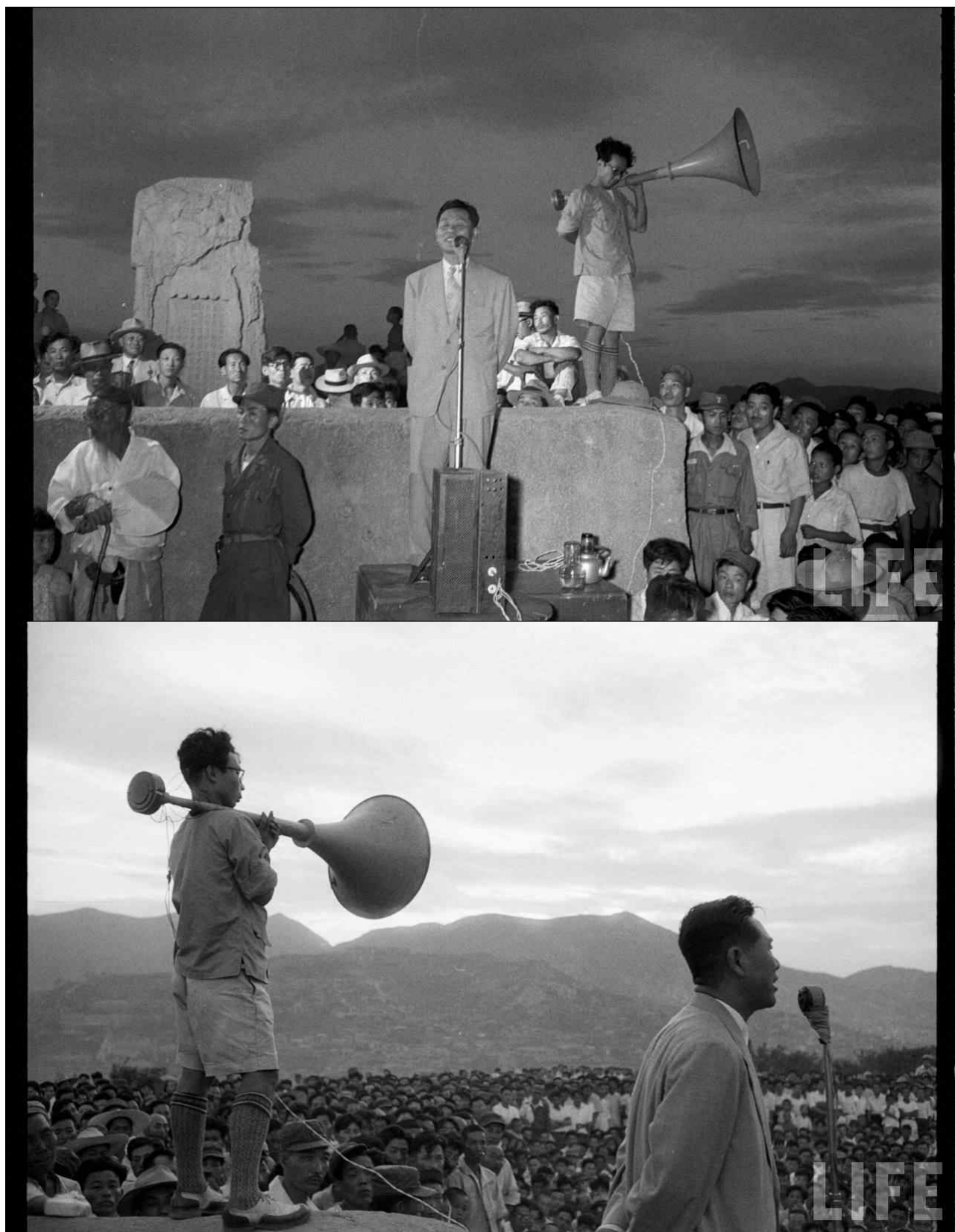
그리움...

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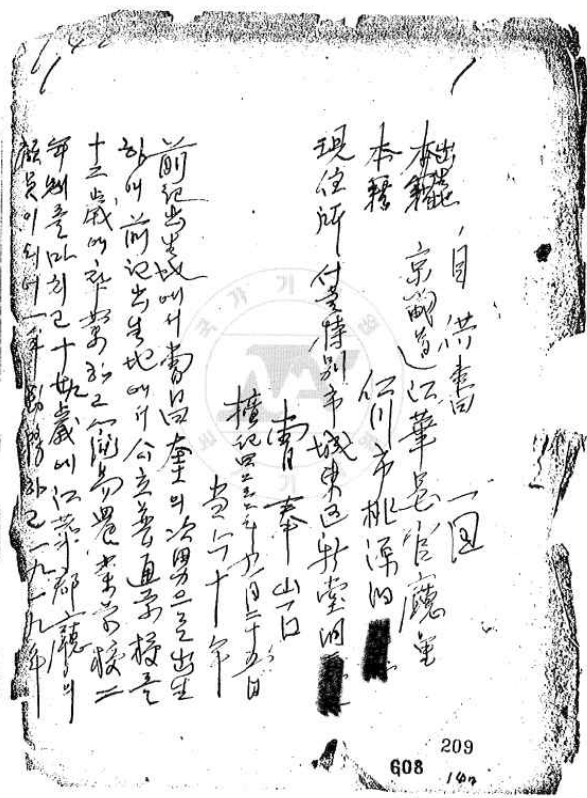
2021.10.12  
- 2021.10.16

주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협찬 세일문화재단,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후원 인천광역시

[붙임2] 라이프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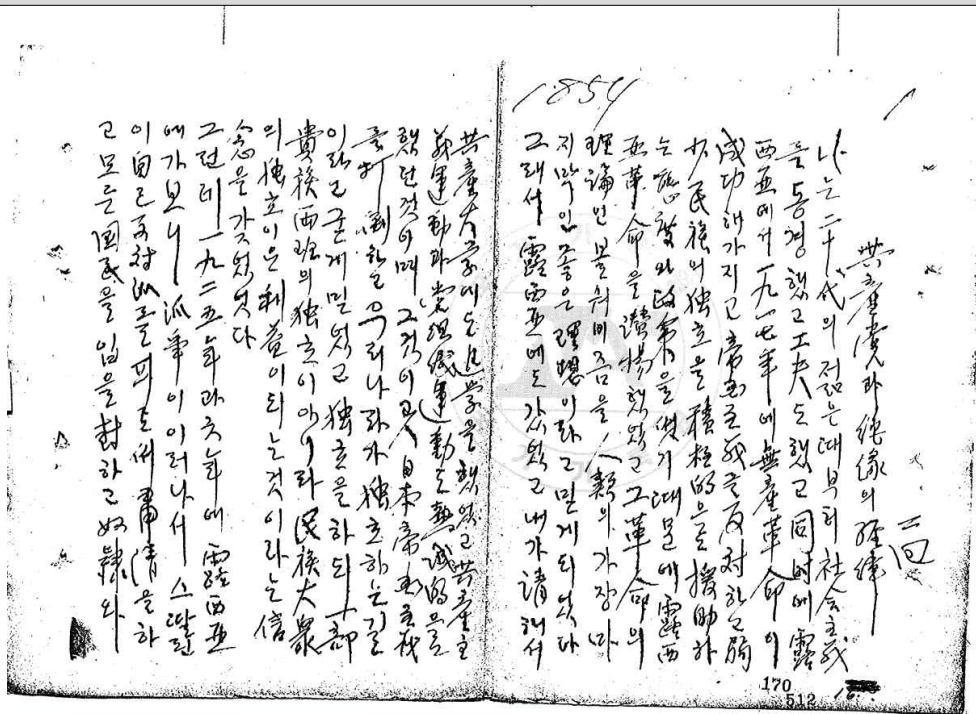


## [참고자료] 죽산 조봉암 자필 자공서 분석(전현수 교수 제공)

해방 후 정당 및 정치 활동	
자공서 1회 원본	본문 내용 중
	<p>…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은 완전히 쏘련의 괴뢰화(傀儡化)하여 민족의 이익(利益)을 무시하고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를 조직하며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등 맹동(盲動)을 하게 됨으로 당(黨)과 절연(絶緣)을 각오하고 심각한 비판을 가하는 서면(書面)을 보냈는바 그것이 외부에 드러났고 그 결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나를 출당(黜黨)시켰고 나도 성명(聲明)을 발(發)하여 탈당을 표명하였음…</p>
<p><b>자공서 (1회) 개요</b>  <b>&lt;자공서(1회) - 조봉암(1958.1. 14)&gt;</b>          이 문서는 국가기록원, BA0802887, 형사사건기록 42책 중 기9, 209-21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제1심 소송기록으로 분류되어 편철되었다. 이 자공서는 1958년 1월 14일 조봉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조봉암의 개인 약력 및 경력, 특히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경험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민족의 이익을 무시하고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조선공산당과 절연을 각오하게 된 심정과 박헌영에게 보낸 비판 서면이 외부에 드러났고 그 결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출당 당했으며, 조봉암 자신도 성명을 발표하여 탈당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단정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합으로 우선 남한에서만이라도 정권을 세워놓고 그 힘에 의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옳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눈여겨 볼만하다.</p>	



## 자공서 2회 원본



## 본문 내용 중

…1925년과 1926년에 러시아에 가보니 파쟁이 일어나서 스탈린이 자기 반대파를 피로써 숙청을 하고 모든 국민을 입을 봉하고 노예와 같이 혹사하고 거기에 불복하면 여지없이 죽이거나 강제수용소에 끌어들여서 끝없는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보았고 따라서 모든 인류로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목도했다…그래서 불세비즘이란 것은 결코 많은 인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인류의 새 이상이 될 것은 독재 없는 사회, 수탈 없는 사회, 자유인 사회, 평등인 사회의 건설이니 그것은 곧 전 인류의 복지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반인간적인 비인도적인 독재정치를 지양하고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수탈행위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만인평등의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 자공서 (2회) 개요

#### <자공서(2회) - 조봉암(1958.1. 16)>

이 문서는 1958년 1월 16일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에서 ‘공산당과 절연의 경위’라는 제목의 두 번째로 작성한 자공서이다. 주요 내용은 20대부터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을 독립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운동을 열성적으로 했으나 1925-26년 스탈린이 반대파를 숙청과 강제수용소 감금을 목도한 것과 해방 이후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의 반민족적이고 반인간적 행보 등을 보면서 공산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공산당을 탈당을 한 뒤로는 공산계열 인사들과 절연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결로써 우선 남한만이라도 민족의 독립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찬성하고 지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진보주의’는 인류의 새로운 이상인 독재 없는 사회, 수탈 없는 사회, 자유인 사회, 평등한 사회 건설이므로 공산주의의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독재정치를 지양하고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수탈행위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만인평등의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